

아동 치아건강 '부익부 빈익빈'

스스로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아동일수록 제때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실제 충치 개수도 16%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12세(중학교 1학년)와 만 5세(유치원·어린이집) 4만1670명을 대상으로 치과 의사가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2000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번에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상태를 상·중·하 3단계로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치과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았다.

경제상태를 '하'라고 답한 학생들의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62.8%로 경제상태 '상' 응답자(73.8%)보다 11%포인트 낮았다. 반대로 치과진료가 필요한데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치료필요율은 '하' 응답자가 25.3%로 '상' 응답자(12.4%)보다 2배 이상(12.9%포인트) 높았다. 전체 아동의 미충족치료필요율은 2010년 32.4%에서 지난해 15.0%까지 떨어졌는데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들의 치과진료 상태는 3년 전인 2015년 수준(25.3%)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경제상태가 '하'인 학생들 가운데 주관적 건강인식이 긍정적인 비율은 30.5%로 절반 이상(55.0%)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상' 학생들보다 24.5%포인트나 낮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이용 접근성은 실제 치아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상태 '하'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우식 경험 영구치(충치) 개수는 2.04개로 '상'(1.75개)보다 16.8%(0.29개) 많았으며 우식 경험 비율(하 58.0%, 상 55.0%), 현재 우식이 발생한 유병자율(하 9.6%, 상 6.0%) 등도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높았다.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인쇄) 치료를 받은 영구치 개수는 '하'가 2.04개로 '상'(2.42개)보다 0.38개 적고 치료를 받은 비율도 53.7%로 '상'(61.1%)보다 7.4%포인트 낮았다.

탐침을 잇몸 내로 삽입해 색깔과 붓기 정도로 잇몸의 염증상태를 측정하는 치은탐침검사 출혈률(하 16.0% 상 11.3%)과 치석보유자율(하 8.8%, 상 6.3%) 등 모든 구강건강지표가 나쁘게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하 2.3회, 상 2.7회)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하 28.7%, 상 34.8%) 등은 낮은 반면

경제상태 '하' 중1 25.3% "아파도 진료 못받아" 충치개수 2.04개...경제사정 '상' 학생 1.75개 복지부, 내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적은 비용부담으로 검진·진료받도록 검토중"

일 2회 이상 간식섭취(하 55.0%, 상 54.5%), 부식유발음료섭취(하 32.4%, 상 26.3%) 비율 등은 높았다.



한국에서의 분수 놀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2일 오전 서울 중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아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5·18 공군보안부대장 운전병, 전두환 헬기 광주행 목격 증언

5·18민주화운동 당시 서울 공군보안부대에서 복무했던 운전병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행을 검출해 증언했다.

5월 3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 공군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가 전날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오씨는 '전두환씨 형사제편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집단 사격 당일인 1980년 5월21일 전 사령관이 용산 헬기장에서 쿠데리에 귀빈용 헬기에 홀로 탑승해 광주로 향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헬기가 아니라 귀빈용 공군 헬기로 육군 헬기와 다른 진정 색이었다. 사령관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기기 위해 참모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씨는 당시 '전두환씨가 공군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동만 706보안부대장의 영접만 받고 곧바로 이륙했고, 1시간30분 단위로 상황 보고 전문이 기록됐었다'는 목격담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진술은 5·18 때 미 육군 501정보연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김씨는 1980년 5월21일 정오 전씨가 헬기를 타고 K57광주비행장(제1전투비행단)에 왔다는 첩보 내용을 미군 상부에 보고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전씨가 광주비행장에

복지부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대상 아동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가까운 동네 치과원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사

日 전직 차관, 40대 무직 아들 흥기 살해

일본에서 중앙정부 차관과 대사를 지낸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흥기로 살해했다.

2일 닛케이신문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도쿄도 네리마(練馬)구의 주택에서 "아들을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네리마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무직인 44세 아들 구마자와 에이이치로(熊澤英一朗)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한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마자와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01년 1월 사무차관까지 오른 인사다. 그는 1년 만에 퇴임한 뒤 2005~2008년 체코 대사를 지냈다.

캘리포니아 폭포서 사진찍던 관광객 추락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타호 호수 부근 폭포에서 한 여성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발이 미끄러져 폭포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북부 타호 산불보호 소방지구 사무실은 이 여성이 5월 31일 이글(독수리) 폭포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고 장소는 타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45미터 떨어진 산정의 폭포 위였다.

소방지구 대변인 에린 홀런드는 1일 발표문에서 이 젊은 여성이 폭포 끝의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게 서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폭포 주변에는 가드레일이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했다.

이번 사망 사고는 위험지역에서 셀피 사진이나 다른 종류의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 날 이 폭포에서는 주변을 둘러싼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부터 기록적인 양의 눈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고 홀런드 대변인은 말했다.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화학 공장 폭발에 '비상사태' 선포

화학 공장이 밀집한 러시아 중부 니제고로드주(州) 제르진스크에서 1일(현지시간) 폭발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건물 180여채가 파손됐다.

타스통신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제르진스크 외곽 TNT 공장에서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세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여파로 주택 등 주변 건물 180채의 유리창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르진스크 시당국은 따르면 피해 범위는 사고 지점에서 3km 반경에 이른다.

공장 직원 38명과 지역 주민 41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15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는 공장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이 발생한 공장은 현지 방산업체 '크리스탈'에 소속된 곳으로 고성능 폭약을 생산·저장하는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또 폭발 당시 공장에 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 관계자는 '부상자들 대부분은 경미한 상처를 호소했다. 일부는 파편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상자 중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르진스크은 폭발에 이어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 400㎡ 면적 시설과 인근 숲 400㎡가 불탔다고 발표했다.

제르진스크 시당국은 도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드미트리 크라스노프 부주지사는 폭발 사고 후 2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관련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조사 당국은 안전규정 위반을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제르진스크는 인산비료·질소비료·합성섬유·플라스틱·농약·수지 등의 화학 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BIC는 제르진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화학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라며 지난 8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뉴스사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